‘K-곡선 미학’ 진수 담은 한국화를 만나다

문경문화회관 30주년 맞아
임무상 화백 특별전 개최
9월1일부터 21일까지 진행
금강산도 등 주요작품 선봬
“30년 작가 인생 회고 의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1990년대 초반 등장했던 캐치프레이즈로, 광고 문구로 사용되기도 했다. 30년이 지난 현재, 저 명제는 현실이 됐다. K-팝은 미국 빌보드차트에 1위에 올랐고, K-드라마는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이미 오래 전 한국의 곡선 미학을 세계에 알리던 작가가 있다. 바로 임무상 화백. 그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다수의 초대전을 가졌고, 특히 이탈리아에서 거장을 의미하는 ‘마에스트로’의 칭호를 받았다. 현재에도 프랑스 파리 미젠 갤러리, 스위스 헤르망스 제네바 갤러리에서 전속작가로 활동 중이다.

K-미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왔던 임무상 작가의 작품세계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문경문화예술회관은 개관 30주년을 맞아 임무상 화백 특별전을 개최한다. 9월 1일부터 21일까지 회관 전시실에서 열리는 특별전은 향토색 짙은 심미감을 바탕으로 한국의 풍광을 화폭에 담아 온 임 화백의 회화 세계를 조망하는 자리다.



산,소나무,달, 73x58cm, 한지,먹,천연혼합채색, 2019.

임 화백의 회화는 ‘곡선 미학’과 ‘공동체 정신’으로 귀결된다. 이는 임 화백이 나고 자란 문경의 초가와 마을 공동체에 기반한다. 이에 대해 임 화백은 이 같이 술회한다.

“내가 태어난 고향마을의 따뜻한 이웃이 ‘공동체 정신’의 바탕이 됐고, 두루뭉술하고 정겨운 초가지붕에서 보여지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곡선들은 나의 ‘곡선 미학’의 원천됐다. 이웃 간에 담을 허물고 콩 반쪽이라도 나누어 먹던 인정 넘친 이웃이 있었고,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와 미풍양속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배어있는 까닭이다. 린(隣)은 어울림의 미학이다. 참으로 린(隣)은 원융한 것이어서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사실, 임 화백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 네 번째 개인전 ‘隣(Rhin)-곡선공동체의美’를 통해 ‘린 시리즈’를 탄생시키면서다. 이를 통해 임 화백은 ‘공동체 정신’과 ‘곡선 미학’을 담은 작품들을 대중에 선보였다.

2005년 금강산을 탐방한 이후 임 화백은 자신의 조형언어인 ‘곡선 미학’을 접목해 새로운 금강산도를 그리는데 몰두했다. 3년을 작업실에 파묻혀 새로운 형상의 금강산도 60여 점을 그렸고, 2008년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임무상 금강산전’을 열어 호평을 받았다. 이후에도 “자연은 모두 곡선”임을 설파하며 ‘산, 소나무, 달 그리고’ 테마를 주제로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임 화백은 “금강산도에 이어 탄생된 ‘산 소나무 달 그리고’ 테마 시리즈를 통해 자연은 곡선임을 가슴으로 체득했다. 이 또한 린(隣)과 다름 아니며, 인간과 자연은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깨달았다”면서 “따라서 내 작업은 시대의 화두인 친환경 · 더불어 살기 슬로건에 부응하는 작업이라 감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전에 출품한 작품들은 지난 30년 동안 작업해온 작품들 중에서 개관 30주년기념 특별전에 걸맞게 작품을 선정해 전시에 임했다”면서 “이번 특별전을 통해 문경 시민과 국민들이 잊었던 향수를 느끼고,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제10회 신작찬불가 작곡부문 공모

오는 9월 11일까지 접수

조계종이 불교음악과 찬불가 대중화를 위한 신작 찬불가 작곡 부문을 공모한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탄원)는 “오는 9월 11일까지 ‘제10회 신작찬불가 작곡부문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관단체는 조계종 불교음악원이다.

작곡부문 공모는 불교음악원에서 공고하는 가사로 작곡된 작품만 지원 가능하며, 별도의 작사는 조계종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작곡한 곡들은 불교적 사상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창작곡이어야 하며, 전통불교 음악의 성격을 띤 선율을 활용해야 한다. 작품 수는 1인 1작품으로 제한되며, 피아노 반주 첨부는 필수다.

응모하려면 응모신청서와 작곡계획서, 악보, 음원파일USB 등을 첨부해 우체국 등기나 이메일로 접수해야 한다.

접수된 작품들은 심사 후 작가 부문 4명, 작곡 부문 4명이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선정 작품은 오는 10월 열리는 불교음악상, 신작찬불가 시상식에서 초연된다. (02)3218-4866

신성민 기자

좋은 벗 풍경소리 ‘풍경소리 56집’ 발매

어린이 찬불가로 불음을 전파하는 좋은 벗 풍경소리(대표 이종만)가 새로운 창작 찬불가 앨범을 발표했다.

2023년 여름을 맞아 발표한 ‘풍경소리 56집’은 △‘야래향 꽃섶’ △‘바람소리 너무 크다’ △‘부처님 함께 걸으시네’ △‘부처님이 오셨네’ △‘부처님은 맑은 거울’ △‘님의 사랑으로’ △‘불자라서 행복합니다’ 등 총 7곡이 수록됐다. 특히 이번 앨범은 대부분의 노래를 어린이들이 직접 노래했고, ‘불자라서 행복합니다’는 트로트가수 배아현이 리메이크해 눈길을 끈다.

한편, 좋은 벗 풍경소리의 찬불 창작곡집은 1996년을 시작으로, 매년 여름, 겨울 노래집을 발표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전등사 · 삼랑성 풍경, 카메라에 담아요

전등사, 제1회 삼랑성사진공모전 개최
9월 17일까지 접수…수상작 경내 전시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사찰인 전등사와 단군이 세 아들을 시켜서 쌓은 삼랑성의 사계(四季) 풍경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전이 열린다.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는 “9월 17일까지 제1회 삼랑성역사문화사진공모전을 공모한다”고 8월 14일 밝혔다.

이번 사진공모전은 삼랑성의 역사적 중요성을 공유하고 전등사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개최되며, 남녀노소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연령, 학력, 지역, 국적 등의 제한이 없다.

삼랑성역사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규격 심사를 거친 뒤 1차, 2차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수상자는 삼랑성역사문화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이번 사진전에는 대상 1명 200만원, 최우수상 2명 100만원, 우수상 4명 50만원, 기록상 10명 10만원 등 총 17명에게 7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작은 삼랑성역사문화축제 기간 중 전등사 경내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사진전의 심사기준은 시각의 독창성, 주제의 전달성, 작품의 일관성, 기록의 충실성 등이며, 작품규격은 jpg 확장자를 갖는 이미지를 제출하되 장축 기준은 3,000픽셀 이상의 해상도를 갖춰야 한다.

파일 용량은 3MB 이상 10MB이하로 하며, 이메일(samlangseong@gmail.com), 웹하드(webhard.co.kr -아이디:mgb90/패스워드:1230) 접수만 가능하다. 응모 시 출품지원서와 사진 원본 파일은 필수이며, 출품료는 없다.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은 “현대인에게 가장 친숙한 대중예술 매체인 사진으로 표현한 삼랑성과 전등사의 모습들이 기대된다”며 “이번 공모에서 다양한 사진 작품이 응모돼 민족의 얼이 깃든 삼랑성의 역사적 가치와 최고 역사를 자랑하는 전등사의 문화재적 가치가 재조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만해사상실천연합, 제8회 만해평화문학축전

오는 8월29일 심우장서 개최
다례재, 학술세미나 등 진행

만해 한용운 스님<사진>의 정신과 홍포를 위한 축전이 개최된다.

만해사상실천연합(이사장 홍파)은 8월 28일 서울 성북동 심우장 일원에서 ‘제8회 만해평화문학축전’을 연다.

‘심우장과 만해 한용운’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전에서는 만해 스님이 55세부터 입적할 때까지 주석했던 도량인 심우장 시절 활동상에 대해 조명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부 행사로는 ‘만해 탄신 144주년 다례재 및 기념식’, 2부 행사로는 ‘심우장과 만해’ 주제 학술세미나, 3부 행사로는 ‘심우장과 만해문학의 향연’이 진행된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서윤길 동국대 명예교수가 ‘만해 독립운동의 본질과 방편’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김광식 前동국대 특임교수가 ‘심우장의 역사 재조명’을, 김지은 성북구청 학예사가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의 현황과 추진방안-서울특별시 성북구 만해 한용운 심우장을 중심으로’를 각각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



성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 장성우 동국대 불교학부 강사가 참여한다.

‘심우장과 만해문학의 향연’에서는 백원기 동방대학원대 석좌교수의 ‘만해의 심우장 시대와 문학의 특징’을 비롯해 마종옥 시인 등의 만해 시 낭송이 이뤄진다.

만해사상실천연합은 “심우장 시절의 만해 스님은 수행에 전념하면서도 비밀리에 민족독립운동을 확산해 나갔으며, 불교대중화 운동과 사회계몽 운동도 끊임없이 전개했다”면서 “이번 축전 행사는 심우장에서 만해 스님의 삶의 자취와 문학 세계, 심우장의 성역화 과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만해사상실천연합은 오는 9월 12일 ‘만해의 길 순례행사’를 연다. 신성민 기자

『화엄경』 주석의 결정판,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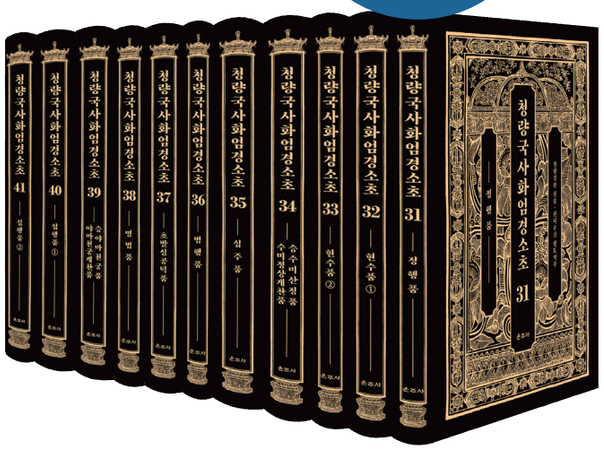
『청량국사화엄경소초』 1~41

『대방광불화엄경 수소연의초』 4차분 11권 출간!

이 시대 화엄종주 수진 스님이 엮어내는 화엄의 대서사시!

제11 정행품부터 현수품, 승수미산정품, 수미정상게찬품, 십주품, 범행품, 초발심공덕품, 명법품, 승야마천궁품, 야마천궁게찬품, 제21 십행품까지 출간!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고지식할 정도의 꼼꼼한 번역!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상세하고 치밀한 각주!



청량 징관 찬술 / 관허 수진 현토역주 / 신국판양장
(낱권 판매 가능)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적멸보궁’의 단청을 그리다!

적멸보궁 단청만다라 컬러링북 1 2

통도사, 중대사자암, 봉정암, 법흥사, 정암사 등 5대 적멸보궁에 그려진 아름답고 성스러운 단청을 54컷의 일러스트로 만들어 누구나 색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정희 지음/국배판/각권 64쪽/각권 값 1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